

잭 케루악의 자아로의 여행—‘사유’와 ‘성찰’*

김은성**

|| 차례 ||

1. 서론
2. 저항, 빠름, 일탈
3. 느낌, 성찰, 깨달음
4. 결론

[국문초록]

비트세대의 반문화 운동은 지배적인 가치와 태도에 저항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운동이었다. 비트세대 작들은, 순응, 획일성, 물질주의, 그리고 소비주의를 거부하고, 그와 반대로 비순응성, 자발성, 그리고 개인성을 찬미했다. 이들의 작품은 1950, 6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떠오른 시대 가치의 기록이었다. 비트세대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잭 케루악은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방랑자를 창조했다. 길과 산에서의 케루악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이 두 작품에서, 방랑자는 케루악과 다른 비트세대 작가들이 찬양했던 가치들을 구현한다. 『길 위에서』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여행하는 방랑자의 모습이라면, 『다르마 행려』의 방랑자는 느린 방랑, 멈춤, 고독, 그리고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 깨달음,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성취한다. 전자의 작품에서의 케루악은 불안하고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후자의 작품에서는 거대하지만 비워있는 자연의 공간에서 머문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열하고 진지한 명상을 통하여 그의 여행의 의미가 최대한으로 실현된다.

주제어 : 잭 케루악, 『길 위에서』, 『다르마 행려』, 여행, 방랑자, 자연, 자아추구

1. 서론

* 이 논문은 2016년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별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 교수. eunseong@korea.ac.kr

잭 케루악(Jack Kerouac 1922-1969)은 미국 문학사조면에서 대체로 ‘비트 세대’작가 군으로 분류된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2차 세계대전 후 1950, 60년대 미국의 지배적인 주류 정치, 경제, 문화 상황에 저항하면서 소위 반문화(counter culture)를 형성하였다. 얼핏 풍요롭고 평온하게 보이던 이 당시 미국사회에서 케루악을 비롯한 비트 세대 작가들이 간파한 속성들은 순응, 일치, 동질화, 물질주의, 검열, 규범, 획일성 등이었다. 풍요와 평온 밑에 숨겨진 이러한 속성들은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억압이었고 비트 세대와 동시대 미국 시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은 이 시기의 미국 사회를 “진정제 맞은 50년대”(“the tranquilized Fifties”)(85)라고 규정한다. 로웰의 지적처럼, 이 당시 미국사회는 순응과 획일성을 강요받아 마치 진정제를 맞은 환자처럼 그저 평온한 사회였다.

로웰과 비트 세대 작가들은 문학사조면에서는 공통점이 없지만, 그들이 진단한 미국사회의 모습은 비슷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사회의 속성들을 미국적 가치로 신봉하고 있던 미국 중산층 계급의 허위를 비판하였으며, 청교도라는 전통적 배경과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가 함께 작용하여 각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자아 검열을 강요하여 개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하여 개인들의 개인성과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그 당시 미국은 억압과 평온을 가장한 공포의 사회였고, 이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단절되고 분열되었으며 개인은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거의 모든 미국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유례없는 풍요와 평온함을 향유할 때, 비트 세대 작가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와 국가 권력이 조절하는 규범화된 삶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반문화를 형성하여 저항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에 소위 미국주의(Americanism)의 대두로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적 경제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의 사적인 경험, 자율적인 판단, 그리고 자유는 억압되거나 유보되었고 개인은 소비로 불안감을 대신하고 대중문화나 매체에 의하여 쉽게 선동되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소위 ‘일차원적 인간’(one dimensional man)으로 ‘형

성'되었다. 결국 미국은 일차원적 인간으로 이루어진 전체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일차원적 인간과 전체 국가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거기에 부딪혔다.

비트 세대 작가들의 저항과 대안 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대표작 「절규」("Howl")는 미국 지배적 주류 문화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이러한 절망과 분노의 직접적인 표출 외에도 이들은 선불교 사상 수용, 새로운 생태의식, 마약, 알콜, 섹스에 탐닉과 같은 탈(비)윤리적 행위, 그리고 떠돌이 또는 방랑자(hobo, bum)로 대변되는 탈규범적 행위 등으로 기존의 가치 체계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방식들은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 받았지만 기존의 가치체계를 넘어서서 미국사회에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였다.

선불교 사상에서 이 작가들은 자발적이고 직관적인 통찰력과 자아 수련(self-discipline)을 배워 비차별적인(undifferentiated) 의식을 깨달았다. 이 의식 안에서 그들은 모든 (특히 차별적 그리고 위계적) 사회, 정치, 문화적 범주들을 허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식을 통하여 사회 시스템을 통제하는 권력의 중심을 해체하려 하였다. 폐쇄적인 사회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였고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을 인식하여 소외된 개인에게 권위(authority)와 진정성(authenticity)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실된 개인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와 그 원리를 따르는 마음을 터득하여 새로운 생태의식을 형성하였고 이는 다시 곧 새로운 윤리, 정치의식으로 연결되었다.

마약과 섹스의 탐닉과 같은 탈(비)윤리적 행위에 때문에 비트 세대 작가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에게 순응을 요구하며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하려는 미국 사회에 대한 가장 과격하면서도 정직한 저항이었다. 금지된 욕망과 사회적 금기를 어기면서 강요된 순응에 대한 거부를 보여 주었으며 기이한 행동으로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을 제거하여 가장 순수한 의식 상태를 경험하려 했다. 결국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

는 탈윤리적이며 기존의 도덕 가치체계를 초월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반항이라 할 수 있다.

비트 세대 작가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의 모습은 방랑자이다. 보통 여행의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연상되는 덕목은 자유의 추구이다. 이처럼 미국 대륙(또는 그 너머)을 여행하는 방랑자로서 이들 작가들도 그들의 여행을 통하여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추구하고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의 여행은 기차에 몰래 타거나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여행을 하고 또는 마치 불교의 수도승처럼 남루한 모습으로 여행을 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등 탈규범적인 행위였다. 비트 작가인 윌리엄 버러우스(William Burroughs)는 1982년 “잭 케루악 학술대회”(Jack Kerouac Conference)에서 케루악의 여행 시작점은 “소외(alienation), 불안감(restlessness), 불만(dissatisfaction)”(Davidson 28에서 재인용)임을 지적하였고 비트 세대 작가들 중 대표적인 방랑자였던 스나이더는 방랑의 시작은 “1950년대 미국의 정신적 그리고 정치적 외로움(spiritual and political loneliness)”(OW 45)이었음을 밝힌다.

대부분의 비트 세대 작가들은 선불교 사상 수용, 새로운 생태의식, 탈(비)윤리적 행위, 그리고 탈규범적 행동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반문화를 형성하여 주류문화에 저항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추구한 가치는 비순응성, 자율성, 직접성, 그리고 단순성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주류사회가 강요한 (위에서 언급한)가치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또한 이러한 비트 작가들의 행위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각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억압된 개인성의 회복이며 닫힌 세계가 강요하는 자아 억제에서 벗어나 자아 표현으로의 전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트 문화의 특징과 배경을 바탕으로 잭 케루악 작품에 나타나는 방랑자와 여행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케루악도 다른 비트 세대 작가들처럼 많은 여행을 경험하였는데 이들의 여행 방법은 대부분 탈규범적이었으며 도중에 탈윤리적 행위도 보여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불교 사상을 접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며 자연 안에서 새로운 생태의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에게 여행은 방랑, 도피, 분노의 표출, 또는 정신적 수행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는 곧 닫힌 세계에서 벗어나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위이다. 따라서 케루악의 여행은 비트 문화의 모든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의 여행 안에 다양한 특성이 들어 있지만 본 필자는 특히 케루악이 여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정한 자아 발견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 자아 추구가 어떤 의미인지 밝혀 보려고 한다.

2. 저항, 빠름, 일탈

앨런 긴즈버그의 「절규」는 1950년대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억압과 제약을 거부하는 비트 작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긴즈버그는 개인의 의식과 상상력에 가하는 억압을 거부하고 가장 순수한 의식 상태로 가서 가장 본능적이며 충동적인 비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비전 추구는 물론 억압에 대한 저항이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거의 광적인 행위나 놀라운 정도로 섬뜩한 정직성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때로는 이 시에서의 모든 행위는 히스테리적일 정도로 과도하고 집착적이며 개인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억압된 의식과 정신 에너지의 분출이었고 말 그대로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절규」는 비트족들의 좌절과 파멸 그리고 그들의 방랑으로 시작한다.

나는 우리 세대의 최상의 마음들이 광기에 의해 파멸되어, 굶주리고
 광란적으로 벌거벗은 채
 새벽에 흑인들의 거리를 헤매며 화난 마약주사를 찾는 것을 보았고,
 천사의 머리를 한 힙스터들은 밤의 조직 안에서 별빛 발전기와
 고대의 신성한 접합을 갈망하며
 가난과 누더기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찬물만 나오는 아파트의
 초자연적 어둠속에서 대마초를 피워 몽롱한 채 앉아
 도시 꼭대기를 가로질러 부유하며 재즈를 명상하는 그들,

I saw the best minds of my generation destroyed by madness, starving

hysterical naked,
 dragging themselves through the negro streets at dawn looking for
 an angry fix,
 angelheaded hipsters burning for the ancient heavenly connection to
 the starry dynamo in the machinery of night,
 who poverty and tatters and hollow-eyed and high sat up smoking in
 the supernatural darkness of cold-water flats floating across
 the tops of cities contemplating jazz, (62면)

여기서 힙스터들은 그 시대의 집단적 ‘광기에 과멸된 최상의 마음’으로 미국의 규범적 가치 체계를 거부하는 일군의 비트족들이다. 그들의 나신(naked)과 대마초는 영어로 ‘original’ 또는 ‘primitive’가 의미하는 원초적인 충동과 에너지의 구현으로 그들의 저항 수단이자 상징이다. 또한 이 나신은 이 작품과 다른 비트 작가들의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이미지로, 자신들의 삶과 예술 사이의 장벽과 경계를 허물어 자신들의 삶이 곧 예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규」에서처럼 비트 세대들은 자신들을 추방자(outcast, exile)로 여기지만 이는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추방이었다. 이 추방은 방랑, 마약과 비정상적인 섹스에의 몰입 등 탈규범적이고 탈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트 세대들은 금지와 인습에서 탈출하고 특히 방랑 또는 여행에서 자신들의 황홀함과 개인성을 완전히 경험한다.

과거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서로의 골고다 언덕 감옥의 고독을
 지켜보고 또는 버밍검 재즈의 화신으로 여행하는
 칠십이 시간 동안 전국으로 운전하면서 영원성을 발견할 비전을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who barreled down the highways of the past journeying to each other's
 hotrod-Golgotha jail-solitude watch or Birmingham jazz
 incarnation

who drove crosscountry seventytwo hours to find out if I had a vision
or you had a vision or he had a vision to find out Eternity,
(66면)

광활한 미 대륙을 자동차로 질주하면서 해방감, 황홀함 그리고 비전을 경험하는 모습은 비트 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특히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의 주인공 켈 패러다이스(Sal Paradise)와 딘 모리아티(Dean Moriarty)를 연상시킨다.

케루악의 소설 『길 위에서』(On the Road)는 미국 대륙과 멕시코까지 동서남북으로 네 번에 걸친 작가 자신의 여행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케루악은 이 소설에서 “모든 것이 붕괴하고 있다”(“everything is collapsing”)라는 말을 가끔 반복한다. 이는 “광기에 의해 과멸된 우리 세대의 최상의 마음”과 상응을 이룬다. 이 말이 암시하듯이, 그는 모든 가치체계가 붕괴하는 것에 대한 절망과 불안에서 여행을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직접 경험한다. 이 작품의 두 주인공인 켈(잭 케루악)과 딘(다른 비트 작가 닐 캐서디 Neil Cassady)은 좌절과 절망에서 비전과 황홀경을 추구하고 경험하는데 그들은 이 황홀경과 비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것”(“it”)으로 칭할 뿐이다.

『길 위에서』에서 특히 딘은 여행 동안 이 “그것”¹⁾을 경험하는데 주관적인 정신 경험이어서 정확한 표현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켈이 “순수한 존재의 지치고 황홀한 기쁨”(“the ragged and ecstatic joy of pure being”)(195)이라고 표현한 상태일 것이다. 이는 정신적 고양 상태로서 이들

1) “『길 위에서』에서 켈은 네 번의 여행을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추구한다. 딘은 ‘그것’에 대한 열렬한 비트 세대의 추구를 대표한다. ‘그것’은 감각적인 개인과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요란스러운 귀중한 것이 의식이 멎어지는 황홀의 절정에 달했을 때 완벽한 이해의 형용할 수 없는 순간을 나타낸다. 켈과 딘에게 ‘그것’은 개인의 의식이 어떤 촉매, 보통 섹스, 마약 또는 강렬한 정신적 절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켈과 딘이 나이트클럽에서 음악가를 보는 동안 딘은 켈에게 ‘그것’의 경험이 재즈 표현의 매체를 통해 어떻게 각성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김호주 40)

은 여행 중에 자동차의 질주, 마약 그리고 섹스의 탐닉과 같은 탈규범적, 탈윤리적 행위 그리고 나이트클럽의 재즈와 같은 반문화적 범주에서 경험하게 된다. 비록 탈규범적, 탈윤리적 행위와 반문화적 범주에서 “그것”을 경험하지만 이 경험은 자발적, 자율적, 즉흥적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아를 추구하려는 강한 욕망의 표출이다. 이들은 질주, 마약, 섹스, 그리고 재즈 등으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황홀”하지만, 이것들을 통하여 억압, 허위의식 그리고 위계적 질서가 없는 “순수한 존재”를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의 추구하고 경험은 결국 이들의 강한 실존의지와도 연결된다.

『길 위에서』에서 “그것”의 경험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것 보다 더 중요한 모티브는 여행(또는 방랑)이다. 이 작품의 화자인 셸은 첫 부분에서 “딘 모리아티의 등장으로 소위 길 위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는 내 삶의 한 부분이 시작되었다고”(1) 말하면서 자신의 여행인생은 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거의 “광적인 딘과 함께 도시를 살피볼 겨를도 없이 그 도시를 질주하고 통과”(206)하면서 미 대륙을 횡단한다. 이들의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물론 억압적이고 닫혀있으며 정체된 사회로부터의 탈출이자 자유추구이다. 이를 위한 행위는 움직이는 것이었다.

우리의 여행이 시작할 무렵 보슬비가 내려 신비로웠다. 나는 우리의 여행이 안개의 모험담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우아!” 딘이 소리쳤다. “가자!” 그리고 바퀴위로 몸을 웅크리더니 빠르게 출발했다. 그가 그의 기질로 돌아왔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리 모두 들떴고, 우리 모두 혼란과 무의미함을 뒤로 하고 우리의 유일하고 고귀한 행위, 즉 이동을 수행 하였다. 우리는 이동했다! 뉴저지 어딘가에서 밤에 신비스러운 하얀 도로 표지판을 획 지나갔다. 이 표지판은 (화살표로) 남쪽과 서쪽을 나타냈다. 우리는 남쪽을 택했다. (134면)

이들의 이동, 즉 여행은 현 시대의 ‘혼란’(‘confusion’)과 ‘무의미’(‘non sense’)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며 불분명하지만 무한한 자유를 향한 노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길 위에서의 여행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들의 여행은 공간적 그리고 신체적 이동이지만, 동시에 위 인용문에서 케루악은 이 여행이 정신적 여행 또는 일종의 의식(ritual)임을 암시한다. “보슬비가 내려 신비로운(mysterious)” 밤은 그들의 여행이 신비로운 의식임을 드러내며 “밤의 신비로운 하얀 도로 표지판”은 어두운 현실에서 갈 길이 정해진 않은 그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다. 광대한 대륙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그들의 여행은, 제약과 억압에서 벗어나 때로는 “그것”으로 표현된 황홀경과 비전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순수한 상태의 실존을 성취하게 하는 정화적인 의식이 된다. 따라서 케루악은 이 여행을 “우리의 유일하고 고귀한 행위”(“our one and noble function”)라고 단언한다.

자발적인 추방자였던 셸과 딘의 여행은 자발적, 자율적, 그리고 즉흥적이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미리 부과된 패턴에서 자유롭고 유동적이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삶을 추구”(Tytell 23)하였다. 동시에 그들의 여행은 집착적이었으며 광적이어서 때로는 자신들을 모두 파괴하고 소비할 만큼 극단적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와 분열을 통하여 그들은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와 그 의미를 형성한다. 광대한 미 대륙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질주하는 그들의 여행은 수평적이고 직선적이다. 이는 공간적 개념이지만, 여행에서 이들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수평적이고 평등적이어서 반위계적, 반엘리트라는 비트 세대의 정신적 가치의 잠재적 촉매제 기능을 하면서 더 나아가 이 가치를 구현한다.

셸과 딘의 여행이 수평적이고 단선적이지만 사실 이들은 여행 중에 다양한 문화와 개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타자를 수용하거나 타자와 충돌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길 위에서』가 두 주인공의 기이한 행위를 담고 있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님을 의미한다. 존 타이텔(John Tytell)은 이 작품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두 주인공, 특히 딘의 복합적인 의식의 탐구라고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길 위에서』의 저작은 도로 여행의 관습적인 서사에서 닐 캐서디라는 인물이 자신의 급격한 변화 안에서 두텁게 층을 이룬 다차원적 의식과 무의식을 깨우는 것으로 변화(a thickly layered multidimensional conscious and

unconscious invocation)를 보여준다. (143면)

김순배는 쉘과 딘의 여정은 “케루악이 관계 지형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보고 이 여정은 “연속성과 즉시성을 지향하고, 수평 지향, 외부 지향의 관계적 지도 만들기(mapping)”(37)²⁾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설명한다.

방랑하는 주체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지형은 하나의 도시 공간을 넘어 대륙의 종과 횡을 가로지르는 질주가 구체적 지도 그리기로 나타나며 확대되는 형국이다. 즉 방랑의 여정이 한 도시에서 다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주어진 길을 따라 추적해 가는 행로가 아닌,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적극적인 존재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51면)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존재의식에서 벗어난 그들의 여행은 자발적이고 즉흥적이며 때로는 과격하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여정과 흔적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상호 관련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³⁾

쉘과 딘이 타자와 상호관련적인 관계의 지도를 형성하는 공간적 배경은 그

2) 『길 위에서』에 대한 ‘관계적 지도 만들기’관점에서의 분석은 김순배 논문을 참고. 김순배의 논문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e)의 분열분석 카토그래피(schizoanalytic cartography) 개념으로 『길 위에서』에서 나타난 존재의 지형이 드러내는 구조와 관계론을 분석한다. “이국의 공간에 이방인 여행자들이 그려가는 지도는 미국을 넘어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세계와의 접촉 가능성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존재의 문화적, 정치적 카토그래피다. 그들의 지도 만들기는 끊임없이 외부를 지향하며 가치를 뺏어내는 여정으로, 지속적으로 고정된 정체성, 고착된 공간성, 존재의 정형화 등에 저항하며 거부하는 행위이다.”(52)

3) 쉘의 여행은 들뢰즈의 노마디즘과 리즘(rhizome)의 개념으로 더 설명할 수 있다. “가타리(Felix Guattari)와 들뢰즈(Gilles Deleuze)는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케루악과 『길 위에서』에 대해 논하면서 작가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등장인물들의 끊임없는 방랑의 체험이 미국적 지형으로서의 리즘(Rhizome)을 만들어가는 행로라고 언급한다. 동시에 그는 리즘을 만들어 가는 여정이 외부와 즉시적인 관계를 이루며 연속적인 수평적 지선 그리기”(successive lateral offshoots in immediate connections with an outside 19)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김순배 37)

들이 질주하면서 지나가던 광대한 미 대륙이라는 공간이다. 이곳은 이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실질적인 공간이지만 쉼은 이곳이 모든 경험 이전에 존재하고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선형적인 공간임을 인식한다. 쉼은 밤에 어느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이곳이 “창조되지 않은 비어있음의 거룩한 공허”(“the holy void of uncreated emptiness”)임을 인지하고 이 구절 뒤에 “밝은 마음의 정수에서 빛나는 강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광휘”(“the potent and inconceivable radiances shining in bright Mind Essence”)(173)라는 구절을 바로 연결시켜 이 공간을 마음의 본질과 연결시킨다. 이 구절들은 선불교의 영향이 뚜렷한데, 이는 케루악이 미국 문화의 대안으로 배우고 익힌 선불교의 영향이다.

‘창조되지 않은 비어있음’은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편견, 선입견 등을 포함한 관념적인 것들이 없거나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되지 않은 비어있음의 거룩한 공허’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세계이다. ‘공’의 세계는 비어있는 세계이지만 동시에 ‘창공’(蒼空)의 ‘공’에서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는 존재들과 그 존재들 사이의 관계로 충만한 세계이다. 이 세계에는 각 존재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져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차이나 구분 그리고 인위적인 범주들이 소멸되는 상태이다. 케루악은 『길 위에서』 후반부에서 이 상태를 “끝과 시작이 없는 비워있음”(“endless and beginningless emptiness”)(254)이라고 다시 이야기 한다. 비록 이 공간이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수평적 관계의 지도 형성이 잠재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선형적 공간이다. 그리고 이는 깨달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정수이다.

3. 느낌, 성찰, 깨달음

『길 위에서』는 2차 대전 후부터 1950, 60년대까지 억압의 시대에 새로운 존재 방식을 기록한 작품이다. 케루악은 이 작품에서 쉼과 딘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지배적인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독특한 주관성과 기이함 등으로 여기에 도전하였고 그 주 무대는 길이었다. 길은 썰과 딘이 다양한 사람들, 특히 “펠라헨”(“felaheen”)라고 칭한 하류층이나 비주류 계층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 길은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유혹이지만 동시에 도피의 수단이기도 한다. 썰과 딘의 여행 중의 경험은 즉흥적이고 직접적이다. 이 경험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지향하는 비트 세대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썰과 딘은 현재의 경험 또는 경험의 현재성을 뒤로 하고 또 다른 현재의 경험을 찾아 나선다.

단힌 결론 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비트 세대들에게 새로운 현재의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재의 경험을 마치 아포리아(aporia)처럼 남겨 두고 또 새로운 현재를 찾아가는 것은 일종의 도피이다. 미 대륙을 끊임없이 질주하던 썰과 딘이 미국을 뒤로하고 멕시코로 여행을 가는 것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가난하지만 여유롭고 자유로운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을 목격하고 직접 향유한다. 이들에게 길은 기회이자 해결책이다. 길은 이들에게 모험을 제공하고 열린 세계로 연결해주지만 동시에 도피의 통로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이클 데이비드슨(Michael Davidson)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길 위에서』에서 “썰은 가치 그 자체로서 길에 너무 의존 한다”(70). 썰이 길 위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가끔 비전과 깨달음을 경험하지만, 길과 거기에서의 경험에 너무 의존하면서 이것들의 의미를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썰과 딘이 빠르게 질주하는 여행속도 때문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

비전과 깨달음을 좀 더 완전히 내면화하는 케루악의 모습은 그의 소설 『다르마 행려』(The Dharma Bums)에 나타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깨달음과 이 깨달음의 내면화는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더 깊어진다. 『길 위에서』에서 빠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며 과격하게 분출되는 케루악의 의식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좀 더 느리고 차분한 여행에 따라 그의 의식은 좀 더 진지하게 표출된다. 특히 깨달음의 내면화는 자연(산)에서의 느린 행보, 자연에서의 멈춤, 자연의 관조, 그리고 자연 안에서의 명상의 정신적 수행으로 이루어지며 본질적 마음(또는 마음의 정수) 성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길

위에서』의 본질적 마음의 성취는 순간적이지만 『다르마 행려』에서의 성취는 좀 더 근원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는 깨달음의 과정이 방랑, 학습, 수행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르마 행려』는 주인공 레이 스미스(Ray Smith)가 친한 동료인 제피 라이더(Japhy Ryder)와 알바 골드북(Alvah Goldbook) 등과 함께 차를 얻어 타면서 하는 방랑(hitchhike), 등산, 산불 감시인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세상과 그 안에서의 자신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여기서 레이 스미스는 작가 케루악 자신이며 제피 라이더는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 그리고 알바 골드북은 앨런 긴즈버그를 각각 모델로 하고 있다. 『길 위에서』는 닐 캐서디를 모델로 하고 있는 딘 모리아티가 셸(케루악)의 열정적인 여행을 주도한다면, 『다르마 행려』에서는 스나이더가 케루악을 좀 더 근원적인 정신적 여정으로 이끈다. 데이비드 스테리트(David Sterritt)는 『다르마 행려』의 주제를 “불교적 깨달음의 추구”(“the quest for Buddhist enlightenment”) (49면)라 요약하는데, 스나이더가 케루악을 바로 이 깨달음과 그 과정으로 인도하는 동료이자 스승의 역할을 한다.

『다르마 행려』에서 레이의 긴 여정은 깨달음의 과정이다. 『길 위에서』처럼, 이 작품에서도 케루악은 길 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전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고독(solitude)의 경험이 추가된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 셸이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에 레이는 이르게 된다. 『다르마 행려』는 레이가 화물 기차에 몰래 타고 여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제피의 충고를 받고 들어간 깊은 산속에서 깨달음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는 신체적 여행으로 시작하여 내적, 정신적 여정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은 즉흥적이며 계속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셸과 딘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고 완숙한 방랑자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고독하면서도 기분 좋은, 시속 1마일로 터벅터벅 걷는 느린 산행”(285-86)을 수행하는 방랑자(bum 또는 hobo)로서의 레이이다.

레이는 셸과 달리 처음부터 방랑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다. 『다르마 행려』 1장에서 화물기차를 몰래 타고 가던 레이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다가 “아직 제피 라이더를

만나기 한 주 전이라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던 데다 ‘다르마 행려’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완벽한 다르마 행려로서 스스로를 종교적인 순례자로 여기고 있었다”(13면)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레이의 모습은 썰과는 많이 다른 존재로 케루악의 정신적 변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반부에 나타난 레이의 순례자로서의 자기 확신은 다소 피상적이며 추상적이지만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동료, 특히 제피의 가르침과 인도 그리고 자연에서의 수련으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과 그 의미는 구체화되고 레이 자신 안에서 내면화 된다.

『다르마 행려』에서 레이의 여행은 자아 발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레이는 어느 날 제피와 산 속에서 야영을 하며 그와 대화를 통해 제피의 고귀한 영혼에 감화를 받고 그와 자신을 “나보다 열 살은 어리고 가난한 친구가 날 바보로 만들어버렸으니, 최근 몇 년간의 음주와 실망 때문에 이전에 알았던 모든 이상과 기쁨을 잊어버린 바보”(113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다짐했다. ‘서부 전역과 동부의 산들, 사막, 배낭을 메고 방랑하며 순수한 길들을 가리라’”(113)라고 표현한다. 레이의 다짐은 그의 여정이 썰과 딘이 보여준 광적이며 도피적인 여행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근원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사실, 타이텔이 지적한 것처럼, “딘의 향락주의(hedonism), 그의 속도 그 자체는 썰에게서 그런 (자아발견) 가능성을 박탈한다”(169). 따라서 『다르마 행려』에서 케루악은 이런 향락주의와 속도 대신에 주위 환경과 근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느린 방랑자로서 레이를 선택한다.

케루악은 제피의 말을 인용하여 진정한 방랑자의 모습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세상 전체가 배낭을 멘 방랑자들로 가득한 풍경을 상상해봐, 다르마 행려들은 일반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걸 거부하리니, 일반인들은 생산물을 소비하고 그 소비의 특권을 누리느라 일을 해야 하지. 솔직히 원치도 않는 온갖 쓰레기들과 냉장고, 텔레비전, 최소한 세련된 신형 차 한 대, 무슨무슨 헤어 오일들, 체취 제거

4) The Dharma Bums 인용은 김목인 번역 『다르마 행려』를 인용함.

제, 거기에도 결국 일주일 뒤에 쓰레기장에서 보게 될 온갖 잡동사니들까지, 그들 모두가 일, 생산, 소비, 일, 생산, 소비의 시스템에 갇혀 있지. 나한테는 위대한 배낭 혁명의 비전이 보여, 수천수만의 미국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며 기도하러 산에 오르고. (141면)

케루악이 추구하는 방랑자의 모습은, 물질주의, 소비지향주의, 일상화된 기계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며 안락함을 유지하는 현대인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율성, 비순응성, 단순성, 그리고 자발적 가난의 가치를 따라 삶의 본질과 정수를 찾아 방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랑자는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 성향의 사회에 저항하거나 벗어나 새로운 대안으로서 반문화를 형성하려는 운동의 아이콘이 된다.

위의 인용문은 비트 세대들이 세상을 방랑하는 것은 정신적 비전을 찾아 나서는 내적 여정임을 보여주는데 레이의 방랑 또한 그러하다. 그의 방랑은 제피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하거나 지나가는 차에 얻어 타면서 진행된다. 그의 강렬한 정신적 비전의 성취는 그의 혼자만의 여행과 자연 속으로의 몰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르마 행려』에서 이루어진 여러 여행과 방랑의 의미는 이 작품 후반부에 레이가 홀로 떠나는 데솔레이션 피크(Desolation Peak)으로의 여정으로 귀결된다. 이 여행 이전에 레이는 가끔 제피 등과 높은 산에 올라가 야영을 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제피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경험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여행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딘가 떠나 완벽한 고독을 발견하고, 마음의 완벽한 허공도 들여다보고, 세상의 온갖 생각들에서 완벽한 중립을 지키고 싶었다”(152면)라고 밝히는데 이 깨달음의 경험과 동기는 데솔레이션 피크로의 여정과 그곳에서의 멈춤에서 완성된다.

제피가 선불교에 대한 더 깊은 공부와 수행을 위하여 일본으로 떠나고 레이는 혼자 데솔레이션 피크로 떠난다. 이곳에서 레이는 제피의 충고와 제의에 따라 산불 감시원으로 머물게 된다. 이곳은 아주 거대하고 높은 산 정상으로, 차를 타고 질주하는 썰의 방랑과는 다르게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사용할 식량 등을 운반해주는 짐꾼들과 올라가는 길은 아주 고된 일이지만 레이는 가끔 이 길을 자신을 정화시켜주는 의식의 공

간으로 인식한다. 그는 산행을 하던 길이 “엄청난 안개비에다 길은 좁고 돌투성이었는데, 나무들과 낮은 덩불이 스쳐 지날 때마다 피부 속까지 깨끗하게 적셔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이 “그야말로 수의 차림의 말 탄 승려”(326면)같은 모습이라고 덧붙인다. 이 모습은 이전에 제피가 자신이 번역한 당나라 시인 한산의 시를 레이에게 설명하면서 묘사한 한산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데슬레이션 피크에서 레이가 경험한 것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에 강력한 몰입이다. 그곳 정상에서 바라본 캐스캐이드 산맥(Cascade Mountains) 풍경을 레이는 “수백 마일에 걸쳐 순수하게 눈으로만 덮인 바위들과 순결한 호수들, 고산 수목들, 그 밑으로 세상 대신 지붕처럼 평탄하게 펼쳐진 마시멜로 구름들의 바다”(333면)라고 서술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풍경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음처럼 이야기한다.

그 모든 것[산맥의 모든 지형]이 내 차지였으니, 그 순간 세상 어느 인간의 두 눈도 원형의 파노라마로 펼쳐진 그 광활한 물질들의 우주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꿈같은 상황이 안겨주는 감정이 어찌나 압도적이었던지 그해 여름 내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폭이 되었고, [...] 정말이지 나는 모든 것들이 뒤집혀 있고 나 또한 뒤집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34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광대한 산 주위의 풍경은 레이에게 공의 세계로 존재한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광활한 창공의 바다는 비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과 존재들로 충만한 공간이다.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면서 이 공간에서 레이는 자연에의 몰입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지형을 형성하고 자아 변형(self-transformation)을 성취한다.

대비드슨은 일반적으로 비트 세대 작가들에게 “자연은 혼란스러운 자아(confused self)가 좀 더 영속적인 형태에 대비하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곳”(45면)이며, 이들에게 “자연의 세계는 인간 사회에는 결여된 유기적인 유대(organic cohesion)와 영속성(durability)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58-9면)고 주장하는데, 데슬레이션 피크가 레이에게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길 위에서』 썰이 질주하며 지나가는 장소들은 즉흥성과 현재성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연속적인 도피 공간이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힘겹게 도달한 테슬레이션 피크는 레이에게 더 이상 도피의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최후의 안식처이자 평안과 깨달음을 위한 근원적인 공간이 된다.

『길 위에서』에서 빈 공간은 썰과 던이 질주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공간이다.

차를 몰고 사람들을 떠나 벌판에서 떨어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기분은 어떠할까? 이 세계는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대한 세계이고 이는 작별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래 다음의 광기어린 모험으로 내닫는다. (156면)

썰과 던에게 미지의 세계는 도착과 이별('good-bye')이 계속되며 '또 다른 광기의 모험'('the next crazy venture')만을 충족해주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이에 반해 레이에게 테슬레이션 피크와 그 주위의 산들은 멈춤, 몰입, 관조, 그리고 명상의 공간이다.

밤에는 비웃과 방한복 위에 관초를 걸치고 안개 싸인 세상의 꼭대기로 명상을 하러 나갔다. 그곳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진실의 구름, 다르마메가(dharmamegha), 즉 궁극의 목적지였다. (331면)

다르마메가는 화엄경의 십지설의 10번째 세계인 법운지(法雲地)를 칭하는데, 이는 “보살의 수행 과정 10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지혜의 구름이 단비를 내리게 하는 경지’란 뜻이다”(김목인 331면). 이 구절은 레이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최상의 지혜 추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레이의 깨달음과 최상의 지혜 추구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질주 대신 멈춤, 자연에 몰입과 자연과의 강렬한 교감, 그리고 명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스토익한 고독(stoical solitude)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고독은 자발적이다. 썰 모습으로의 케루악은 끊임없는 움직임에서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지만 레이로서의 케루악은 움직임을 멈추고 자발적인 고독에 침잠한다. 썰은 다양한 존재와의 만남에서 관계지형의 지도를 형성하지만 레이

는 공의 세계에서 정신적 수행을 통하여 외부와 관계지형을 형성한다. 선 수행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행위이지만, 이 행위는 최소한 자신, 다른 자아, 그리고 외부의 세 가지 이상의 존재가 서로 관련된다. 따라서 이 행위를 통하여 수행자 자신의 마음 또는 정신과 외부 세계를 통찰하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외부와의 관계 지도가 새롭게 설정된다. 그런데 이 관계 지도에서, 썰과는 달리, 레이가 깨달은 것은 자아 변형이다. 그는 산속의 풍경과 자신의 거처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늦은 오후, 변한 건 공(空)이 아니라 나였다”(343면)는 것을 깨닫는다.

광대한 자연에서의 삶과 수행은 레이가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레이는 자연의 장엄한 숭고미에 먼저 압도당하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이 자연과 직면하여 몰입을 한다. 이 몰입 속에서 레이는 자연과 강렬하게 교감을 하는데, 이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그의 치열한 정신작용이며 따라서 그의 선 수행과도 직접 연결된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은 그의 의식을 정화해주는 의식(ritual)이 되기도 하는데, 썰에게는 무한 질주와 계속된 움직임이 이 역할을 한다. 동시에 그의 질주와 움직임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계속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레이의 자연에의 침잠은 썰의 질주와 움직임의 종착역이며 그의 여정의 의미가 여기서 완성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아 변형이다.

자아 변형은 그 주체가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꾼다. 자연과의 교감과 선 수행을 통하여 레이는 자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과 시선을 보여준다. 혼자 자연에서 수행 중 그는 문득 주위의 자연(꽃)에 그의 깨달음을 투영시킨다.

순간 내가 진정 혼자이며 스스로 쉬고 쟁겨 먹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꽃들이 바위들 주위로 어디에나 피어 있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자라라고 하지 않았고 나에게도 자라라고 하지 않았다. (334면)

그리고 계속해서 “무한한 자유의 비전이 영원히 내 것이었다. 얼룩다람쥐

가 바위틈으로 뛰어들었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렇게 모든 것들은 단순했다”(345면)라며 자신의 깨달음을 자연을 통하여 나타낸다.

케루악이 생태학적 주장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한 적은 없지만 위의 두 인용문에 나타난 그의 자연 인식은 상당히 생태학적이다. 주위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 다람쥐, 그리고 나비들은 그저 보고 스쳐가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도 자라라고 하지는 않지만 피어있고 또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 피어있는 꽃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다람쥐와 나비는 독자성, 고유성, 자율성, 단순성, 그리고 주체성의 구현체이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것들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자연’의 본래적 의미와 자연의 자연스러움에 가장 부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연물에는 비트 세대의 작가들이 찬양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구현되어 있다. 레이 자신도, 아무도 꽃에게 자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꽃들이 이 가치들을 구현하면서 존재 하듯이, 그에게 아무도 자라라고 하지 않았지만 타율과 억압에서 벗어나 이 가치들을 터득하고 스스로 향상된 존재로 성장한다.

레이의 생태학적 인식은 자신의 정신적 수행에 의한 깨달음의 결과이다. 소위 심층생태학의 중요한 취지가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인간, 자연, 그리고 이 두 존재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면에서 레이의 생태 의식은 심층생태학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의 공동 저자 드발(Devall)과 세션스(Sessions)는 “심층생태학적 의식의 추구는 적극적이며 심층적인 질문(active deep questioning)과 명상적인 과정과 생활 방식을 통한 좀 더 객관적인 의식과 존재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66면)라고 명시하는데, 레이의 생태학적 인식의 성취 과정도 이에 해당한다.

심층생태학적 의식과 선 수행은 이분법적 분류와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고 또 이 틀에 기반한 인위적인 위계질서를 제거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심층생태학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를 제거하고 선 수행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범주의 분리가 소멸된다. 그리고 심층생태학과 선 수행은 모든 존재와 사물이 서로 고립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서

로간의 소위 네트워크(network) 안에서 존재함을 밝힌다. 케루악은 『다르마 행려』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인식으로 외부와 교감하는 레이의 모습으로 이 작품을 끝낸다.

나 역시 짐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다 돌아서서 한쪽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오두막이여.” 그리고 웃으며 “어찌고”라고 덧붙였으니, 저 초소와 산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고, 난 뒤돌아 산길을 따라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 (347면)

레이가 데솔리션 피크에서 산불 감시원의 업무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서 자신이 머물던 산불 감시원 초소와 산과의 상응관계 및 완전한 교감을 보여준다. 이제 레이는 깨달음과 생태학적 의식을 성취하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산’을 한다.

4. 결론

케루악을 비롯한 비트 세대 작가들이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개인성(individuality)이었다. 이 개인성은 데카르트와 같은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절대적 주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비트 세대 작가들의 개인은 항상 외부에 열려 있으며 외부와의 관계에 의하여 계속 형성되는 주체였다. 이들이 정신적 비전을 추구한 것도 정신과 의식을 억압하는 주류 사회의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외부와 교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타이렐은 비트운동의 기원을 미국의 초월주의에서 찾는다.

그들(비트 세대)의 정신적 조상들은, 적극적인 이상주의(aggressive idealism), 기계와 산업에 대한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불신, 인간과 대지와 관계의 기원으로 회귀하려는 열망을 가진 쏘로우(Thoreau), 또는 다른 부족의 관례(tribal code)에 대한 모험적인 관용을 보여준 멜빌(Melville), 또는 평범한 사

람들의 잠재성을 찬미하면서 평등적인 활기로 미국에서 가공되지 않은 새로움(raw newness)과 자신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속도를 낙관적으로 찬양한 휘트만(Whitman)과 같은 사람들이다. (4면)

케루악도 셸과 레이의 여정을 통하여 쏘로우처럼 이상주의와 자연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타자와 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관계지도를 형성하려 시도하였다. 특히 휘트만처럼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던 광대한 미국 대륙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며 자아 변화(self-change)와 정신적 비전을 추구하였다.

쏘로우, 멜빌, 그리고 휘트만의 문학의 중요 모티브는 ‘움직임’이다. 이들의 주된 사상은 그들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형성되고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 역시 주인공의 ‘움직임’(‘방랑’)이 작품의 기본 구조로서, 각 작품의 주인공인 셸과 레이의 방랑이 중요한 모티브다. 하지만 작가 케루악의 다른 자아(alter ego)인 이 두 주인공의 방랑은 방법, 과정, 그리고 결과 등 면에서 많이 유사하면서도 다른 면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두 작품의 전체적인 문체(style)에서도 나타난다.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의 기본적인 구조는 전통적인 의미의 줄거리(story) 없이 주인공들의 행위, 사고, 감정 등을 열거하듯이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미국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작품의 내용과 형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T. S. 엘리엇(Eliot)은 소위 ‘몰개성’(‘impersonality’) 기법으로 분열된 감수성을 통합하려했고, 그 당시 아주 과격적이었던 휘트만(Walt Whitman)의 시 형식은 그가 찬미한 가치들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시 형식은 내용의 연장선이었다. 이처럼 케루악도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였다.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를 비롯한 케루악의 작품은 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이 작품들에서 탈규범적이고 탈윤리적인 경험들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경험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이 시도는 즉흥적이며 직접적인 서술 방식으로 그대로 전달된다.

「자연스러운 산문의 필수 사항」(“Essentials of Spontaneous Prose”)에서 케루악은 개인의 사고, 감정, 마음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 사항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문장 구조를 분리하는 마침표는 없을 것,”(“No periods separating sentence-structure”) “표현의 선택성이 아닌 마음의 자유로운 이탈(연상)을 따를 것”(“Not selectivity of expression but following free deviation (association) of mind”), 그리고 “적당한 단어를 생각하기 위하여 멈추지 말고 만족할 때까지 어린 아이들처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어를 축적할 것”(“No pause to think of proper word but the infantile pileup of scatalogical⁵⁾ buildup of words till satisfaction is gained”)(57면) 등이 있는데 이는 인위적이고 고안된 표현이나 어휘들을 거부하고 사고나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따를 것을 제시한다. 결국 이 필수 사항들은 사물이나 감정, 사고 등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즉시적인 본질을 즉각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에서 케루악은 자신의 경험, 심리 상태, 그리고 대화 등을 포함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서술한다. 독자는 작가가 마치 수정, 재수정과 같은 창작과정 없이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그리고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⁶⁾. 이러한 글쓰기에는 작가 자신의 존재, 생각, 그리고 감정 등이 중심이기 때문에 작가를 그의 작품과 분리시키는 파운드(Pound)의 마스크(mask)나 엘리엇의 몰개성과 같은 장치 없이 작가는 그의 작품에 바로 자신을 투영시킨다. 따라서 여기서는 작가 자신의 경험, 고백을 포함한 발언 등에 실존적 가치를 부여해서 동질성, 순응, 그리고 익명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묻혀버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표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연스러운 산문의 필수 사항」에서 제시된 글쓰기 안내는 케루악이 지

5) “Scatalogical: Used to describe an idea or way of thinking that is neither sensible or logical. A Combination of scat and logical.” (Urban Dictionary)

6) 스테리트(Sterritt)는 케루악의 이러한 글쓰기를 “번개 빛 속도로 타이핑한다”(“lightning-quick typing speed”)(40)라고 표현함.

배적인 주류 문화에 맞서 추구했던 단순성, 자율성, 개인성, 직접성, 그리고 비순응성 등과 같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이다. 또한 이 글에서 케루악은 “개선하기 위하여 후에 생각하지 말거나 인상을 부가하지 말 것”(“Do not afterthink to improve or defray impressions”(58면)이라는 원리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afterthink’와 ‘defray’는 ‘수정’(‘revision’)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경험의 즉시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수정이 위에서 언급한 가치들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정의 과정에는 개인의 내면화된 자아 검열과 연결되어 사회가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억압과 금지에 자신을 순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케루악의 글쓰기는 기존의 관념과 관습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전략이었다.

1950년대 비트 세대 작가들에게 “수사법(rhetoric)은 비유적인 언어 또는 논쟁의 논리가 아니라 주체의 주관적 상태를 극적으로 고양(the dramatic enhancement of subjective states)시키는 것과 관련되었는데”(Davidson 36면), 이는 케루악에게도 해당된다. 그의 서술 방식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이어서 그의 작품에는 비유적인 언어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체 특징은 그의 여행과 방랑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빠르게 질주하는 ‘움직임’은 그의 억압된 의식과 무의식의 표출이어서 아무런 제어 없이 그의 경험을 서술한다. 이 서술 방식은 자신의 개인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 더 나아가 자아의 본질에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적당한 문체는 ‘선택성’과 ‘수정’이 아니라 ‘즉시성’과 ‘직접성’이어야 한다. 『길 위에서』에서 케루악은 바로 이 문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다르마 행려』는 ‘질주’보다는 ‘느림’, ‘멈춤’, ‘정신 수련’ 그리고 ‘집중’이 지배적인 만큼 그 문체는 더 차분하고, 절제적이며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두 작품 문체의 차이는 작가 자신의 다른 자아의 모습을 반영한다.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에서의 케루악의 여행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단순한 여행이나 방랑이 아니라 현실의 탈출이며 동시에 정신적 수행이기도 하였다. 이 여행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

는 행위이자 비트 세대 작가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다른 작가들처럼, 케루악도 여행 중에 탈규범적 그리고 탈(비)윤리적 행동을 많이 하였지만, 이런 행동을 비롯한 그의 여행은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행위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로 그의 여행은 지배적인 사회와 그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저항이었다. 따라서 케루악의 여행은 “서구 문화의 주류와 세습적으로 전이(patrimonial transmission)되는 것에 대한 그의 계속적이며 광범위한 비판이며, 그 자리에 문화 운동과 변형에 대한 비위계적이며 수용적으로 열려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Melehy 51면).

『길 위에서』와 『다르마 행려』에서의 케루악의 여행의 큰 차이점은 ‘계속적인 움직임’과 ‘멈춤’ 또는 ‘침잠’이다. 하지만 이 차이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이 상반된 행위에서 모두 케루악이 타자와의 관계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길 위에서』에서 쉼은 계속적인 움직임으로 다양하며 계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다르마 행려』에서 레이는 움직임 보다는 고독(solitude), 침잠, 그리고 자연에의 몰입 등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관계형성은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심층적이다. 따라서 『다르마 행려』에서 레이는 자연 또는 우주의 거대한 텅 빈 공간과도 상응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는 자신의 자아변형으로 이어진다. 『길 위에서』에서 시작된 여행은 『다르마 행려』에서 완성되고 내면화된다. 이 과정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사유와 성찰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점이 바로 우리가 케루악의 여행에서 찾아야 할 의미일 것이다.

[ABSTRACT]

Jack Kerouac's Journey into His Self

Kim, Eunseong
Korea University

The Beat Generation's counterculture was a cultural and social movement which protested against the main values and attitudes. Rejecting conformity, consensus, materialism, and consumerism, writers and members of the Beat Generation celebrated non-conformity, spontaneity, simplicity, and individuality. Their works are a kind of record of these values which began to emerge in the 1950s, 1960s in America. Jack Kerouac,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Generation, created a hobo or bum who can be referred to as a close figure of himself in *On the Road* and *The Dharma Bums*. In the two books based on Kerouac's immediate and individual experiences on the road and in mountains, the bum figure embodies the values which Kerouac and other beat writers celebrate. Instead of identifying himself with a hitchhiker figure in continuous movements and rush into and out of places in *On the Road*, Kerouac as Ray who narrates *The Dharma Bums* adapts slow wandering, staying, solitude, meditation to attain the peaceful state of mind, or the essential mind and enlightenment and to reach a greater selfhood. While Kerouac as Sal looks restless, rootless, and anxious and has no idea of where he is going in *On the Road*, Kerouac is finally anchored in a vast but empty space of nature in *The Dharma Bums*. His intensive and private experience here leads his long journey to be fulfilled and realized in *The Dharma Bums*.

Key Words: Jack Kerouac, *On the Road*, *The Dharma Bums*, journey, bum, nature, selfhood

참고문헌

- 김순배, 「『길 위에서』에 나타난 분열분석 카토그래피와 미학적 정치성」, 『미국소설』 22.3 (2015): 35-64면.
- 김호주, 「책 케루악의 『길 위에서』에 나타난 ‘그것’의 추구하고 황홀경」, 『영미어문학』 89 (2008): 25-44면.
- 케루악, 책. 김목인 역, 『다르마 행려』 (The Dharma Bums), 시공사, 2015.
- Charters, Ann, ed. *The Portable Beat Reader*, Viking Penguin, New York, 1992.
- Davidson, Michael, *The San Francisco Renaissance: Poetics and Community at Mid-Century*, Cambridge UP, Cambridge, 1989.
- Devall, Bill, and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Gibbs M. Smith, Salt Lake City, 1985.
- Ginsberg, Allen, “Howl.” Charters 62.
- Kerouac, Jack, *On the Road*, Penguin, New York, 1957.
- _____, *The Dharma Bums*, Penguin, New York, 1958.
- _____, “Essentials of Spontaneous Prose.” Charters 71-72면.
- Lowell, Robert. *Life Studies and For the Union Dead*.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56.
- Melehy, Hassan, “Kerouac’s Quest for Identity: Satori in Paris.” *Studies in American Fiction* 41.1 (2014): 49-76면.
- Snyder, Gary, *The Old Ways: Six Essays*, City Lights Books, San Francisco, 1977.
- Sterritt, David, *The Beat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P, New York, 2013.
- Tytell, John, *Naked Angels: Kerouac, Ginsberg, Burroughs*, Grove Press, New York, 1976.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2월 6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